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전윤미 의원, 전주김치산업관 공유주방으로 전략 지적
신유정 의원, 스마트팜 지원 사업 운영 부실
박혜숙 의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상화·활성화 촉구

전주시의회가 시 소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전윤미 의원(효자 2동, 3동, 4동)이 전주김치산업관(덕진구 도도동 소재)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 신유정 의원, 박혜숙 의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의원은 "전주김치산업관은 전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취지로 총 85억 원을 투입해 2022년 5월에 준공 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외지 업체 한 곳만 이용하는 공유주방으로 전략해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에 불과하다"며 "운영 수익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기에 시설 개보수와 상주 인력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해져 재정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전 의원은 "수입액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주김치산업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운영 적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운영 구조 전면 개선과 더불어 김치 산업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치산업관은 준공 후 계속 방치되다가, 2023년 10월 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야 2024년 공유주방 형태로 변경 개관했으나 현재까지 익산에 본사를 둔 외지 업체 한 곳만 이용해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유정 의원은 "수요자 모집에 실패한 사업들은 높은 초기 비용과 기상 등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수 등으로 지자체와 수요자 사이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수요도가 높으면서도 성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송천동과 같은 입지에서 로컬푸드 식당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전주시가 판매 후 남은 농산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까지 고민해 농민들이 전주푸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공유주방을 이용한 기업은 익산 소재 업체 한 곳이 88일 사용한 것이 전부이며, 하루 이용료 9만 원으로 총 수입이 792만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올해 전주시 스마트팜 지원사업 중 50%가 수요자 모집을 못해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전주에 걸맞는 사

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의원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이에 해당하는 농업정책과 소관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전주에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의원은(송천 1동)은 22일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푸드는 설립 10년을 맞아

이제 체계적인 운영과 안정화를 이뤄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난항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설립 초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주푸드가 설립 초기의 목적을 잃고 직매장을 무계획적으로 개설했다가 폐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운영이 실패로 이어진 점을 비판했다.

현재 센터장 공모가 두 차례나 적격자 부족으로 무산되며 작년 12월 이래 경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주푸드 정상화와 체계화를 위해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적합한 인재 채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송천동과 같은 입지에서 로컬푸드 식당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전주시가 판매 후 남은 농산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까지 고민해 농민들이 전주푸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주푸드는 농민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이 소중한 자산을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초기 목적에 충실한 운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욱기기자

폐기물 매립시설 현장 점검 나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운철 의원)는 지난 22일 완주 이서면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찾아 사업 계획과 운영 상황 등 각종 현황을 점검했다.



김운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1단계 폐기물매립장' 현장에서 각종 행정 절차와 공사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는 전주권 광역2단계 매립장을 찾아 운영 상황 등을 확인·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전주와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의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소각재, 리사이클링타운 협합물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은 시설의 70% 정도 이뤄진 상태다.

김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설공단, '사랑의 김장 김치'로 이웃사랑 실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삼)이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참여한 '급여 끝낸 폐기' 기금과 공단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봉사단은 김치통과 고추장, 양치마 등을 준비하고, 식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왔다.

이상이온으로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담가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연삼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이날 절임 배추와 양념으로 김장 김치 100포기를 손수 담가 취약 계층 25가구에 전달했다.

대상 가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과 돌봄센터 아동 가정 위주로 선정했다.

김장재료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김욱기기자

'맛과 멋을 버무린, 전주김장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전주시·푸드통합지원센터, 618가족 대상 진행... 김치 전시·홍보·체험 행사 등 다채롭게 열려

전주에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온 가족이 함께 김장하며 즐기는 김장문화축제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성을 인증받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절임배추와 양념 재료가 제공됐다.

또한 올해 김장문화축제에서는 행사장 내 전라도 김치 전시 및 홍보·체험 행사를 위한 부스도 마련됐으며, 먹거리 판매부스도 운영돼 전주푸드 가공품 출하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막걸리와 두부 등 다양한 먹거리가 홍보·판매됐다.

전주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에서 전주시민 총 618가족을 대상으로 '2024 전주김장문화축제'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김장문화축제에 참여할 가족을 접수했으며, 그 결과 현장 수령 신청자 271가족과 현장 체험 참여자 341가족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버 텃밭·방아 쪼기, 키질(벼 탈곡한 뒤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 등 가을놀이 농촌 체험과 전통 농기구 체험 △ 각종 만들기 체험(오복김장 복주머니만들기, 김장할 땀 스킨) △어린이 김장 놀이터(웃놀이, 협동재기 등) △공주귀뚜라미 포토

맛과 멋을 버무린, 2024 전주김장문화축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김장 문화를 홍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참여 가족에게 전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안전

특히 첫날 개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주 전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도·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존 △퓨전 국악공연 등도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줬다.

이외에도 시는 쓰레기 없는 탄소중립 축제를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이 김장통과 고무장갑, 양치마를 직접 가져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김장문화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년도에 호응이 좋아 축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였으며, 각종 체험행사 및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맛과 멋이 버무려진 김장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삼천2동에 이웃돕기 물품 전달

전주시마을기업협회(대표 허정)에서 삼천2동(동장 배경남)을 방문하여 백미, 수제청, 꽃차, 화분, 한과 등 200여 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와 소득,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학전영농조합에서 백미, (유)채움에서 생산한 꽃화분과 꽃차,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에서 만든 수제청이 후원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한옥마을협동조합, (사)꼭두 등 5개 마을기업 회원들이 십시일반성금으로 준비한 라면 13박스

/김욱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